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2019.06.17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1W	1M	3M	6M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KOSPI	1.1	1.9	-3.7	1.2	12.4	12.4	0.9	0.9	2.3	2.3	<p>SK텔레콤 40.6% (Flat WoW, -0.1%p MoM) KT 49.0% (Flat WoW, Flat MoM) LGU+ 39.5% (+0.2%p WoW, +0.9%p MoM)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율 소폭 상승</p>
통신업종	1.7	-0.2	0.5	-9.5	12.2	12.2	0.8	0.8	3.7	3.7	
SK텔레콤	1.6	0.4	2.2	-7.5	13.3	10.0	0.9	0.8	4.0	4.1	
KT	0.2	1.1	1.1	-8.0	9.9	8.8	0.5	0.5	3.9	4.1	
LG유플러스	3.9	-4.9	-2.3	-16.5	12.3	11.0	0.9	0.9	2.8	2.9	
AT&T	-0.4	2.3	5.5	7.0	9.1	8.9	1.3	1.3	6.3	6.4	
Verizon	1.8	1.6	-0.2	2.1	12.3	12.0	3.9	3.4	4.2	4.3	
T-Mobile	-2.8	-0.6	2.0	14.1	18.9	15.8	2.2	2.0	0.0	2.5	
Sprint	-1.3	15.3	9.7	17.4	96.0	N/A	1.0	1.1	0.0	0.0	
NTT Docomo	-1.2	1.7	-0.8	-2.7	12.5	13.9	1.5	1.5	4.4	4.8	
KDDI	-1.2	-0.3	6.9	3.7	10.7	10.6	1.6	1.5	3.7	4.0	
Softbank	1.4	-0.7	-7.7	17.8	8.7	8.3	1.6	1.3	0.4	0.9	
China Mobile	-3.0	-4.1	-20.5	-8.9	10.5	10.2	1.1	1.1	4.9	4.9	
China Unicom	0.6	0.4	-15.0	-2.8	16.7	12.3	0.7	0.7	2.4	3.3	
China Telecom	-3.2	0.5	-9.3	-1.0	12.5	11.7	0.8	0.7	3.3	3.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6월 둘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6%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5G 가입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반대 의견도 일부 발생
국내 기관은 이통3사 순매수, 외국인인 SK텔레콤 순매도, LG유플러스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19일 5G+ 전략위원회가 제1차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주요 예산 확보 및 정책 결정 속도가 빨라지면서, 특히 5G B2B 사업 추진이 가시화
B2C 사업에서도 빠른 5G 가입자 수 증가를 통해 3Q19부터 무선ARPU의 구조적 반등 가능
중국 등 글로벌 5G 투자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통신장비주의 수혜 역시 지속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	10 민주당, 단독국회 소집 여부 최종 결정	11	12	13	14	15
16	17	18	19 5G+ 전략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	20	21	22

3 주간 뉴스

▶ 아니 벌써? 69일 만에 5G 가입자 100만명 돌파 (전자신문)

-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가입자는 4월 27만명, 5월 말 약 77만명, 6월 10일 100만명 돌파
- LTE 보다 빠른 증가 속도 기록 중. LTE는 전용 스마트폰 출시 이후 3개월 이후 100만명 돌파
- 5G 기지국은 지난달보다 3,980국 증가한 6만1246국, 장치는 14만,3275개가 각각 구축
- ⇒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공시지원금 및 프로모션 등 이통3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의 효과
- ⇒ 이통3사는 공항 및 KTX 역사, 쇼핑센터 및 전시장 등 대형 시설에 5G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中 차이나모바일, 5G에 6.6조원 규모 투자 (ZDNet Korea)

- 차이나모바일은 387억 위안(약 6조 6천억 원) 규모의 5G 프로젝트 구매 입찰 공고를 게시
- 설계에 3조 3천억 원, 연구에 3조 3천억 원 사용. 9월 이전 40개 도시에서 서비스 개시 계획
- 당초 차이나모바일의 올해 5G 투자 예상치를 웃도는 큰 규모. 중국 정부의 투자 독려 효과
- ⇒ 1위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도 테스트용 5G폰 8,100대를 구입하는 등 상용화 준비에 박차
- ⇒ 중국의 5G 투자가 예상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KMW 등 통신장비주의 수혜가 기대

▶ 美 '화웨이 제재' 역풍...곳곳서 이상기류 (아이뉴스24)

- 화웨이는 버라이즌을 상대로 기술 침해를 이유로 10억 달러(약 1조1800억원)의 특허료를 요구
- 유럽 외에도 미국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제 학회나 협단체 등도 화웨이 제재를 취소하는 상황
- 구글과 아마존 역시 화웨이 제품 판매를 재개. 구글은 화웨이 수출금지 면제를 미국 정부에 요청
- ⇒ 스프린트-T모바일 합병이 어려워지면서 소프트뱅크 역시 다시 화웨이와 협력할 수 있다는 관측
- ⇒ 다만 백악관이 화웨이 제재 유예기간 연장 요청을 철회하는 등 미국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

▶ 한국, 핀란드와 6G 공동개발...차세대 이동통신 동맹 강화 (전자신문)

- 과기정통부,ETRI, 핀란드 오울루대는 6G 이동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
- 양국은 6G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5G, AI, 빅데이터 등 ICT 분야 포괄 협력을 추진할 계획
- 정부는 노르웨이, 스웨덴과도 5G 상용화 경험을 공유하고, IoT, AI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
- ⇒ SKT, KT 등 이통사 역시 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에 맞춰 노키아, 에릭슨과 MOU 체결
- ⇒ 북유럽 네트워크 장비사와의 협력은 KMW 등 통신장비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토종OTT 형평성 확보해줘야" (서울경제)

- 국내 중소 OTT 업체들은 이 방통위원장에게 글로벌사업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해달라고 요청
- 구체적으로는 망 이용료 산정과 OTT 제도화에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 이 위원장은 해외사업자를 규제할 수 없으면 국내사업자도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설명
- ⇒ 올해 '폭+'옥수수' 등의 OTT 출시가 예정되어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의 당위성이 증가하는 상황
- ⇒ 방통위는 추가적인 간담회 진행 예정. 규제 마련 시 해외사업자 대비 국내사업자의 경쟁력 향상

▶ '1300억' 우본 차세대 기반망 사업, 통신3사 모두 도전 (디지털데일리)

- 11일 이통3사는 우본의 13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기반망 사업 입찰에 모두 참여했다고 발표
- 제안서 평가는 19일 완료. 주 사업자는 933억원을, 부 사업자는 356억원 예산을 배정
- 시스코와 주니퍼 등 글로벌 사업자 배제하지 않을 계획이나, 화웨이의 참여는 어려운 상황
- ⇒ 기존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주 사업자는 KT, 부 사업자는 LGU+. SKT의 추수 가능성에 주목
- ⇒ 이통3사의 담합 등 부정당 이슈로 인한 기간망 사업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큰 제재는 없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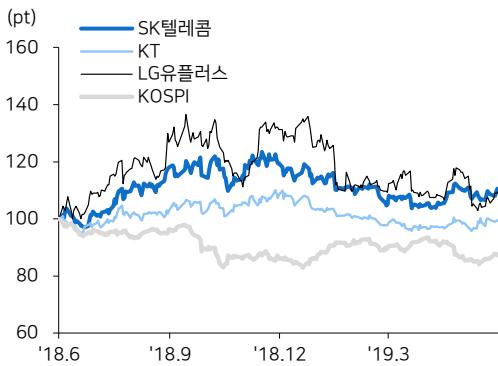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한국	SK텔레콤	259,000	17.6	14.9	15.5	1.1	1.2	1.3	1.7	4.1	4.3	6.0	5.7	6.8	8.5
	KT	28,250	6.2	20.1	20.6	1.1	1.2	0.6	0.7	4.1	4.3	2.5	2.4	5.5	6.0
	LG유플러스	14,700	5.4	10.5	10.9	0.7	0.7	0.4	0.5	2.3	2.4	3.5	3.3	7.6	8.1
미국	AT&T	32.4	236.1	183.1	183.6	37.4	38.4	25.3	26.0	60.2	60.6	7.2	7.2	11.7	11.8
	Verizon	58.3	241.0	131.8	133.3	31.0	31.8	19.7	20.2	48.2	49.2	7.8	7.6	33.8	29.4
	T-Mobile	74.9	64.0	45.4	49.2	5.9	6.6	3.4	3.8	12.8	13.6	8.2	7.7	11.5	12.1
	Sprint	7.0	28.7	33.4	33.1	2.7	1.7	0.3	-0.7	12.6	11.0	4.9	5.6	1.2	0.3
일본	NTT Docomo	2,490	76.5	43.2	42.6	9.0	8.0	6.2	5.5	13.7	12.9	5.3	5.8	12.6	11.2
	KDDI	2,736	59.4	46.5	47.4	9.2	9.4	5.6	5.7	14.4	15.0	5.0	4.8	15.5	14.5
	Softbank	10,005	96.3	86.2	90.2	16.5	12.3	10.8	11.0	27.6	25.9	7.7	8.4	14.6	14.9
중국	China Mobile	68.3	178.7	108.5	112.3	18.0	18.4	17.1	17.6	41.9	43.5	2.8	2.7	10.9	10.7
	China Unicom	8.5	33.0	43.5	46.3	2.2	3.0	2.0	2.7	13.4	14.3	2.5	2.4	4.3	5.7
	China Telecom	3.9	40.1	57.0	59.3	4.6	4.9	3.2	3.4	16.0	16.6	3.2	3.1	6.3	6.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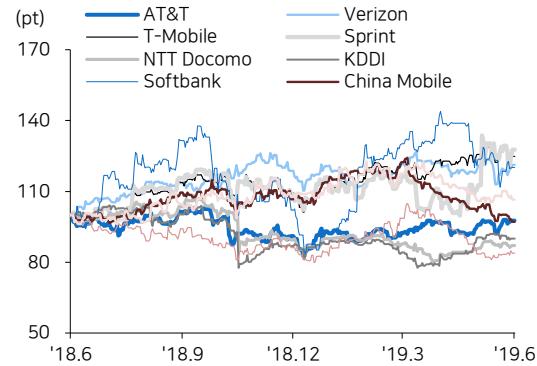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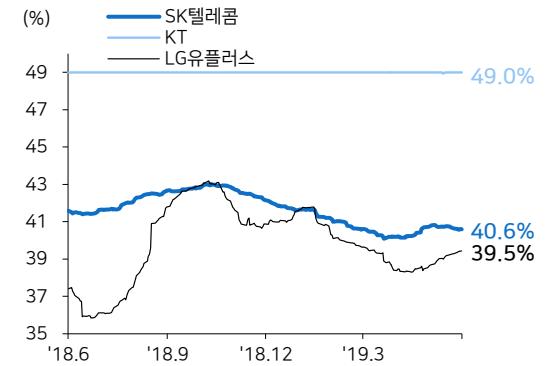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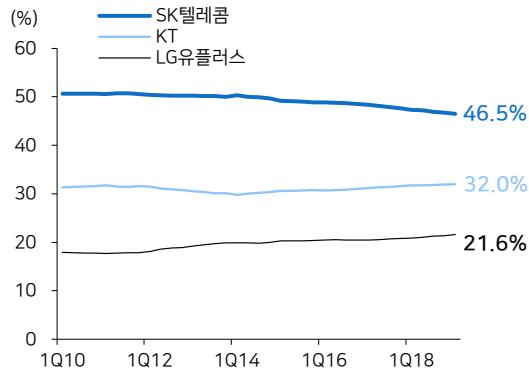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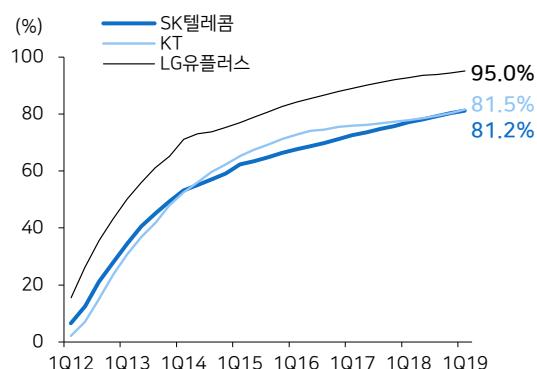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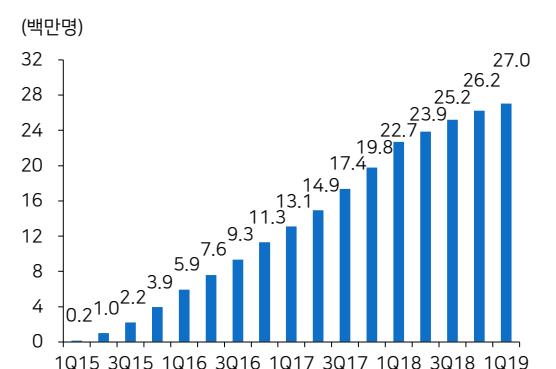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보급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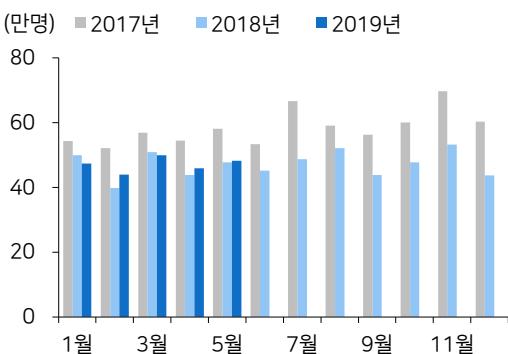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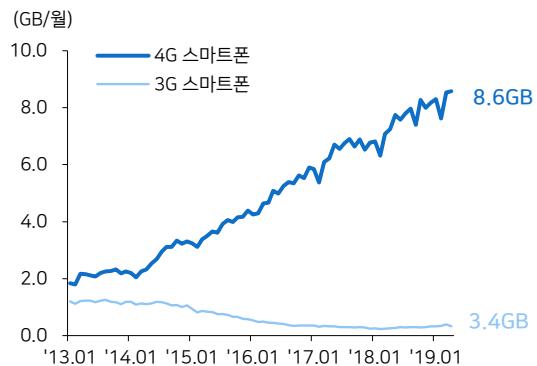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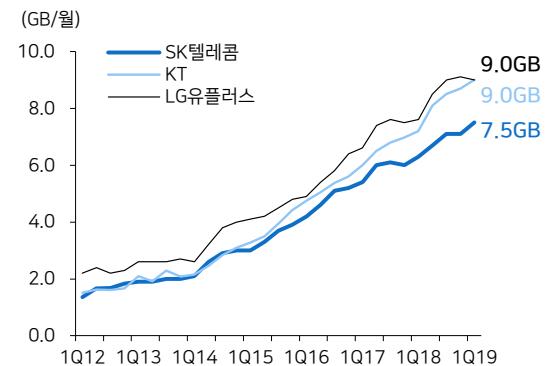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06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06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06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문경원)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